

제일모직, 에버랜드 주주소송 긴장!

참여연대, 전환사채 실권 소제기 청구소송 ... 손실규모 223억원 상회

참여연대가 1996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가 에버랜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사채를 실권한 당시 제일모직 경영진을 상대로 하는 주주 대표소송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10월19일 제일모직의 이사였던 이건희 회장과 당시 제일모직 유현석 대표이사 등 경영진 16명을 상대로 에버랜드 CB를 실권함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실을 물어내도록 주주 대표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소송에 참여할 원고 주주 모집에 들어갔다.

자격은 6개월 이상 제일모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소송제기에 필요한 주식은 제일모직 발행주식의 0.01%인 약 5000주이다.

소송은 10월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에버랜드 CB를 이재용씨 등이 7700원에 인수토록 한 것은 주주배정을 가장한 편법증여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CB를 실권함에 따라 상속·증여세법이 정한 평가기준으로도 회사가 입은 손실이 223억원으로 추정되며, 제일모직의 에버랜드에 대한 지분율이 CB 발행이전 14.14%에서 발행이후 5%로 하락한데 따른 손실을 감안하면 실제 손실은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소제기에 필요한 지분을 위임받는 즉시 제일모직에 회사가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소제기 청구서>를 제출한 뒤 제일모직이 소송제기에 불응하면 직접 소송을 낼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5/10/21>